

다산포럼

다산초당의 정석(丁石)



김언중 고려대 명예교수

강진 다산초당에 오르면 왼쪽 뒤편에 '정석(丁石)이란 두 글자가 새겨진 바위를 볼 수 있다. 정약옹이 쓴 이 글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정약옹이 강진에서 보낸 유배 생활은 18년. 그 가운데 후반기 10년 6개월을 이다산 초당에서 보냈다. 그 전에는 강진형 동문밖의 주막집 뒷방, 고성사의 보은산방, 제자 이학래의 집 등을 전전하였다. 1808년 3월 16일에 처음으로 윤단(尹搏)의 다산초암(茶山草庵)에 간 정약옹은 그 그윽한 산수에 흠뻑 빠지고 만다. 얼마나 마음에 드는 곳이었는지는 그때 지은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와 '다산화사'(茶山畵史) 20수에 나타나 있다.

기고

수돗물은 억울하다



김혁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최근 지인들과 오랜만에 광주 گیا아 썸 피언스 필드를 방문해 야구를 관람했다. 직업병 때문이었을까? 경기가 끝나갈 무렵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관중들이 마시다 버린 많은 물병이 보였다. 빈 병이 많았지만 물이 남아 있는데도 버려진 병도 상당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휘발유보다도 더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먹으면서도, 물을 너무 쉽게 버린다. 애주가들이 '피같은 술'이라며 비장하게 마지막 술잔을 비우는 것은 자주 봤지만 아직까지 먹다 버리는 물을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4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지만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선생님께서 "미래에는

물을 사먹을 것이고 물값은 아마도 자동차 기름보다 비쌀 것"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 난다. 당시 우리들은 쉬는 시간에 "차라리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나오는 게 빠르겠다(휴대 전화)", "왜, 기계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다고 하지(무인 자동차)" 등등 당시로서는 다소 황당한 말(?)들을 늘어 놓으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런데 그 예언 아닌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요즘 휘발유 가격은 1 l 당 1400원대 수준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500ml 생수 한 병(제조사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이 700~800원 정도이니 1 l 에 대략 1500원에 이른다. 이런 현실인데도 우리는 물을 아끼워 하지 않고 먹다가 남은 물을 버린다. 반면 휘발유는 한방울이라도 더 넘으려고 셀프로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쥐어 짜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보통 한가족이 하루 중에 세안, 빨래, 청소, 샤워, 설거지 등에 사용하는 수돗물값은 1000원 안팎으로, 한 달이면 2만~3만 원 꼴이다. 여기에 하수도 요금은

柱)에 얹어 있었다. 이때 어느 소년이 할로 쓰려고 했다. 학은 날아올라 공중을 빙 돌며 말했다. '새야 새야 정령위야. 집 떠난 지 천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네. 성곽은 여전히나 사람들은 변했구나. 어찌 신선술은 배우지 않고 무덤만 날려있나' 그리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신선술은 배우지 않고 무덤만 날려있나'... 세속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이상의 승화의 세계가 있다는 정령위의 탄식에, 윤단의 세속 초월 의지뿐만 아니라 당시 권력자들의 작태에 고뇌하던 정약옹의 동기가 내포된 듯하다. 윤단을 기념하여 그 바위에 두 글자를 새기고 읊은 정약옹의 시를 보자. "대나무 집 서쪽에 돌병풍이 있는데, 부용성 꽃 주인은 이미 신선이로세. 학 날고 그림자 떨어져 이끼 푸르고, 기러기 발자국 깊어 글자 자취 푸르구나. 기이한 돌보고 절한 미물은 미친 게 아니라 겸허하였고, 술 취해 누운 도잡은 득의망형(得意忘形)이로다. 부열의바위, 우임금의 석굴도 잡초에 문혔거늘, 어찌 구구하게 글을 새기랴."

이끼 무늬 푸른 자리는 '부용성 꽃 주인' 윤단이 '앉았던 자리'이며, 윤단의 지취로 보아 그를 기념함에 긴 말은 굳더기였다. 정약옹은 이 시에 다음과 같은 주(註)를 달았다. "다산 서쪽 푸른 돌병풍에 정석(丁石) 두 글자를 새겼다. 이 미 이름 내지 않으려는데 왜 이름을 내는가? 없어지지 않을 이름이라면 이름을 내지 않더라도 크게 이름날 것이요, 없어질 이름이라면 이름을 내더라도 홀로 널리 알려질 수 있겠는가? 이름이나 이름 나지 않으나 그것이 그것이로다." 이처럼 정약옹은 윤단을 신선 정령위에 비겨 기리면서 윤단의 지취와 삶을 정석(丁石) 두 글자에 압축하여 기념하였다. 다시 말해, 정석(丁石)의 '丁'은 정약옹(丁若鏞)의 정(丁)이 아니라, 정령위(丁令威)의 정(丁)이니, 바로 '윤단'을 뜻한다. 우리는 이 고사에서 '다산초당에서의 십년'이 정약옹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령위와 윤단의 선기(仙氣)가 정약옹의 내면을 관류하던 한 정정한 기운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울한 상황이 됐다. 적수는 정수장 계통 시설을 점검하면서 단순하지 않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바뀌고 강한 압력이 발생하면서 관에 붙어 있던 물때가 이탈돼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민 중 일부도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광주 수돗물 만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상수도 관리 선진 도시인 광주광역시 경우 특히 수계 전환 과정에서 제수밸브 관리 체계가 전문화돼 있다. 수계 전환 시 매뉴얼을 준수해 녹물, 물때 등이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유입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도 하고 있다. 또 타 지자체와는 달리 상수도 블록 구축 사업을 시행할 때 각종 공사 시 관 내부의 이물질들을 전량 배출하는 블록도립 방법을 사용하고, 2003년부터는 80mm 이상 수도관에 청소구를 설치해 세관 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광주의 수돗물 '빛어울수'를 마셔보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하고 저렴한 물이다.

청춘 특·특

협상이 어려운 당신에게



이현정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많은 사람이 협상은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고 오해한다. 남북 협상, 기업과 기업 사이의 인수 합병과 같은 것은 당연히 협상으로 생각하지만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 직장 동료나 상사와 회의를 하는 것, 혹은 집에서 가족과 이야기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협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오해는 협상에 대한 개념 부족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은 '협상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가 협상의 타결에 대한 기대를 일치시켜 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을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기억하고 잘 활용한다면 협상의 우위를 점할 협상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마·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무역 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근 각종 포털 사이트가 협상 관련 이슈로 연일 뜨겁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은 경제 성장을 둔화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었던 마·중 무역 협상은 왜 결렬됐을까? 최근 '류재언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을 읽고 필자는 생각해 본다. "요구가 아닌 욕구에 집중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를 넘어 상대가 생각지도 못한 숨은 욕구를 자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들의 협상 방식이다"(p 89) 표면적으로는 단순 무역 협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협상 내면에는 자국 입장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대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중국 자존심의 정면충돌이 깔려 있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그 내면의 욕구까지 관철돼야 진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당사자가 전부가 아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협상 테이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숨은 이해관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p175) 이해관계인은 협상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많은 협상을 우리는 지켜 봤다. 이 사례에서 숨은 이해관계인은 주변국들에 해당한다. 가장 핵심국인 한국, 북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그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대한 협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숨은 이해관계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업무를 진행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팀 사이에서, 크게는 회사 간에도 서로의 피드백이 오고 간다. 사회생활에서 이해관계인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와 상대방의 협상력의 차이를 규정 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한 가지만 꼽자면, 그것은 바로 배트나의 존재 여부다"(p182) 배트나(BATNA : Best Alternatives To a Negotiated Agreement)'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합의된 협상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한다.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 결과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혹은 대안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실패시 가질 수 있는 차선책이란 뜻이다. 대안이 많을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가령 연봉 협상을 할 경우 자신이 다른 곳으로부터 좋은 제의를 받았다면 연봉 협상에서 나의 협상력을 강화시킨다. 상대방이 나의 대안을 알고 있느냐의 여부, 그 대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협상력의 강약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배트나와 함께 협상 상대방의 배트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협상의 원칙으로 총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일상 곳곳이 협상이며,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협상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살아가며 겪게 될 많은 협상에 있어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은 그 원칙을 알려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사립고 '내신 몰아주기' 의혹 엄정한 수사를

경찰이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내신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광주북부경찰은 자신이 지도하는 교내 수학 동아리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수학 문제를 사전에 제공한 한 사립고 수학 교사 A씨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A씨를 업무 방해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 최근 A씨를 고발한 시교육청 장학관을 불러 조사하고 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현재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는 시교육청은 A씨가 동아리 학생들에게만 미리 제공했던 두 장짜리 유인물을 적힌 90문제 중 다섯 문제를 지난 5일 치러진 기말고사 수학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문항은

기하와 벡터 등에 관한 최고난도의 문제였고, 총 점수의 합은 26점이나 됐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학교 수학 동아리는 성적이 뛰어난 기숙사생 상위권 학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 등에서만 사용했던 교재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됐다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러기보다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광주 교사노동조합이 이번 일에 대해 '재직 교사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 과외를 하고 학교 측은 이를 도운 사건'으로까지 규정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경찰은 학교 측이 내신 몰아주기 등으로 학사 행정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싸움질 멈추고 추경안 처리하라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임시국회가 여야 공방 속에 정쟁만 계속하다 아무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필미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82일간이나 보이콧했다가 간신히 시작한 임시국회였다. 하지만 각종 민생제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과 포항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제출된 6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은 90일이 되도록 발목이 묶였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거듭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난 데는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탓이 더 커 보인다. 한국당은 애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 경제실정 및 북한 목선 사건 국정 조사를 요구하더니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긴다. 이 정도면 '협치'를 명분으로 한 '몽니'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맹당 추경' '현금 살포 추경' '가짜 일자리 추경'이라 매도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억지에 가깝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안 심사조차 기피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에 굳이 장관 해임안을 연계시켜 '식물 국회'를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 공세일 뿐이다. 국방장관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해임안은 해임안대로 별도로 협의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헛바퀴를 도는 데도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추경을 둘러싼 강경 대치는 정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7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추경안은 빨라야 8월에야 통과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추경안 처리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40년 5월,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 40만여 명이 파죽지세로 진격해 오는 독일군에 밀려 조그만 항구 도시 덩케르크에 갇히고 말았다. 포위된 병력이 이대로 궤멸하면 전세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국민에게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모든 가용 선박의 동원령을 내렸다. 영국 국민은 이에 적극 부응했다. 요트와 어선 등 작은 배들까지 독일 공군 폭격의 위협을 무릅쓰고 덩케르크 해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연합군은 결국 탈출에 성공한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끝나고 처칠은 천명한다. "항복은 있을 수 없다. 그 희생이 얼마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그의 단호한 메시지는 영국 국민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이는 결국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어졌다. 지난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여당 연합이 71석을 확

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70석을 합쳐 두 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123석)을 훌쩍 넘게 됐다. 수출 규제 등 반한 감정을 고리로 '과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 국가로 가는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아베 정부는 다음 달 안전보장위원회에 수출 관리 우대 조치를 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일 경제 전쟁이 현실화·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 교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친일 공방 속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 가는 여야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설익은 주장에 바라보면 걱정이 앞선다. 경제는 실리라고 한다. 위기도 마찬가지다. 아베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지금 정치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결속의 메시지일 것이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